





제 315호 대표전화 043)234-0840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 기관돋보기 | 청주가경노인복지관

# 디지털 격차를 넘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노년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디지 털 격차 해소와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맞춤형 복 지 서비스를 제공해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CT시랑방'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연계한 'CT 해피에이징'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민·관 지원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넓혀가고 있다. 이에 복지관은 노인복지시설 평가에서 꾸준히 사동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보건복지

부 장관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은 지역의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춰 현장의 실천을 이어가며, 어르신 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 력하고 있다.

(편집자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김현숙)은 2001년 '청주노인복지마을'로 시작해, 2012년 신관 건립과 함께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올해로 25년째 지역어르신들의 행복한 커뮤니티센터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새로운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온 결과, 복지관은 노인복지시설 평가에서 꾸준히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문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재 청주시 흥덕구의 유일한 노인 복지관으로서 7300여 명의 회원이 등 록돼 있으며, 52개 프로그램과 자율이 용 시설을 통해 하루 평균 약 20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다.

복지관은 코로나19 이후 지역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대응하고자, 노인 친화형 디지 털 공간 구축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SK하이닉스와 협력하여 2022년 충북 최초 '시니어 ICT사랑방'을 조성,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의 선도 기관으로 자 리잡았다.

ICT사랑방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키오스크로 커피를 주문하고 음 악·영상 콘텐츠를 즐기며 디지털 기 술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활 용 교육은 대중교통 앱 사용, 모바일 신 분증 발급, 여행 계획 세우기 등 실생활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높은 만족도 를 얻고 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전경.

#### '배워서 남 주자!' 실천하는 선배시민들의 따뜻한 나눔 건강·교육·권익증진으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더 나아가,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직접 강사로 활동하는 'ICT' 해피에이징 서포터즈'도 운영되고 있다. 2024년 1기 서포터즈 17명이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며, 이 중 8명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돼 소득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청주 전역으로 확산 되어 SK하이닉스는 ICT사랑방 2·3 호 설치를 지원했고, 청주권 노인복지 관들과 함께 'ICT' 해피에이징 공동협의 체'를 구성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디지 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흥 덕구청과 협약을 맺어 농촌 지역 경로 당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서포터즈 활 동 범위도 확대 중이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나눔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배워서 남 주자!'는 슬 로건 아래, 어르신들은 지식을 공동체 와 나누는 '배움의 생산자'로 거듭나고 있다.

건강, 음악, 인문학, 디지털 등 50여 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베이비붐 세 대의 유입으로 참여 연령층이 젊어지 며 활기를 더하고 있다. 수강에 그치지 않고,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나누려는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또한, 사진반, 우쿨렐레반 등에서는 지역 어르신의 프로필 촬영, 옛 사진 복 원, 거리 버스킹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 졌고, '그레이상스 행복인문 아카데미'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직원 단체사진.

수강생들은 요양원 방문 공연으로 따뜻한 정을 전하며 '행복 전도시' 역할을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욕구조사에 따르 면 전체 대상자 421명 중 77%가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신체 건강(58.1%), 경제적 지원(30.4%), 정 신 건강(10.5%)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일률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개별 욕구 중심의 통합 사례관리가 필 요함을 보여준다. 복지관은 2026년 시 행 예정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에 맞춰, 기존의 사례관리 경험을 바탕 으로 'Aging in Place(살던 곳에서의 삶의 지속)' 실현을 위한 주민조직화 기 반 통합지원체계를 준비 중이다.

김현숙 관장은 "도농복합도시인 청주의 특성상, 특히 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교통편 부족으로 복지관 이용이 쉽지 않다"며 "자가 운전도 많지만 이는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와 복지관의주차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료 셔틀버스나 저렴한 유료교통수단 마련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관은 단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어르신이 계신 그곳이 곧 복지 관이 되어야 한다"며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마을 구석구석 '찾아가는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진정한 지역복지가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배워서 남 주 자!', '권익증진 동아리', '은세계봉사단' 등 다양한 복지관의 활동은 어르신들 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가능성을 넓히 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오늘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복지관 회원들은 이제 지역사회와 세대를 돌 보는 당당한 '시민'으로서, 노년의 삶을 더욱 빛나게 가꾸어가고 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은 노인을 보호 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시민으로 바 라보며 사회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이끌 고 있다.

2025년에는 '지역과 세대를 잇는 시 민실천가 양성과정'을 통해 청년 세대 와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캠페인과 정 책 제안 등 공동체 돌봄 실천 활동을 적 극 펼쳐갈 예정이다.

#### 충북도, 전년 대비 출생이수 증가율 전국 1위

올해 6월까지 충북 12.8% ↑ … 전국평균 7.9%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3 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충북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8%(468건) 증가한 41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7.9%)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 · 도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충북은 인천과 대구 등 대도시권을 제 치고 선두에 올랐다. 도내에서는 제천 과 증평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출생 아가 늘었다.

주목할 점은 괴산 · 단양 · 보은 · 영 동 등 인구 감소 지역에서 평균 이상으 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충북도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최 근 몇 년간 추진해 온 저출산 극복 및 인 구감소 대응 정책의 효과를 꼽는다. 이 번통계는 충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 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지방 중견 지자체가 타 시도를 앞서는 결과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정체 또는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추가적이고 세밀한 접근 이 필요하다.

곽인숙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은 "차별화된 정책 발굴과 촘촘한 현장 지원이 실제 출생률 개선에 기여하고 있 다"며 "앞으로 더 두터운 지원책을 통해 도내 모든 지역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이 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임신·출산·양육 관련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가치자람(gachi,chungbuk, 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큰사랑약국</b> 상당구 월평로 182(용암동)	043) 294-8088	24시간 운영	💍 충청북도
	첨주시	<b>흥덕약국</b> 서원구 흥덕로 70(사직동)	043) 262-7907	밤 10시~새벽 1시	불은 밝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2025 홍정북도 345발 만든무?
		우리윤약국 총덕구가로수로 1317(복대동)	043) 233-0123	밤 10시~새벽 1시	
	춤주시	<b>남산태평양약국</b> 남산4월 52(교현동)	043) 847-8051	밤 10시~새벽 1시	
		보건약국 총인5길 13-1(총인동)	043) 857-0100	밤 10시~새벽 1시	
	증평군	<b>성가약국</b> 종평읍광장로 91	043) 836-2405	밤 9시~밤 12시	

2025 충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안내.

#### "밤에도 걱정 없이" 충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 야간 · 휴일 의약품 접근성 높이고 도민 건강안전망 강화

충북도는 7일 일반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 및 휴일에도 도민이 안심하고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 정 ·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에도 도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단순한 의약품 판매를 넘어 전문 약사의 복약상담과 의약품 안내까지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성격의 약국이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위장약 등 일반 의약품은 물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도 가능하며, 약물 복용 방법이나 주의사항 등 약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야간시간대 복약안전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의 경우 응급실 이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의약품 상담이 어려운 상황이 많아, 공공심야 약국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유용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및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되며, 현재 도내에서는 청주시(큰사랑약국, 흥덕약국, 우리윤약국) 3개소, 충주시(남산태평양약국, 보건약국) 2개소, 증평군(성가약국) 1개소 총 6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시간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이며, 인구 10만 명 이하의 지역은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연중무휴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경조사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월 1~2회의 자율 휴무가 허용된다. 자세한운영시간과 약국 위치 등은 충청북도청누리집(www.chungbuk.go.kr)을 통해확인할수있다.

안은숙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운 영지역을 계속 확대해 도민 누구나 필요 한 시간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 공공심야 약국은 응급 상황에서 의약품 공백을 줄 이고, 도민 건강권 보호에 꼭 필요한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가정위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위탁부모가 되어주세요"

##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3조)

## 위탁부모가 되려면?

- 1) 아동에 대한 <u>애정</u>과 <u>사랑</u>
- 2) <u>25세 이상</u>, 아동과 <u>나이차 60세 미만</u>
- 3) 범죄전력 및 정신질환 <u>NO</u>
- 4) 친자녀수 <u>4명 이하</u>
- 5) 예비위탁부모교육 5시간 이수

## 위탁부모 신청 절차는?

- 1) 가정위탁 신청 및 접수
- 2) 예비위탁 부모교육 수료
- 3) 예비위탁가정 상담 및 방문





# 음성군, '국립소방병원' 12월 진료 시작

#### 302병상 · 19개 진료과목 갖춘 종합병원

음성군은 15일 전국 최초로 건 립되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인 국 립소방병원이 오는 12월 개원한 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 사각지대였던 음 성군에 응급의료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종합병원의 설립은 군민들의 오 랜 염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충북혁신도시 내 국립소방병원 유치는 대형 병 원의 접근성이 열악한 중부 4군 주민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립소방병원의 유치 과정은 험난했다. 소방 방재청은 충청권 4개 시도에 소방병원 신 청을 요청했지만, 수도권 지자체 의 항의로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전국 62개 지자체가 공 모에 참여했다.

충북은 6개 지자체가 참여해 1차 평가 결과 청주시와 음성

군 · 진천군의 충북혁신도시가 선정됐고, 1차 선정 지역에 대한 현지실사 등을 거쳐 충북으로 최 종 확정됐다.

국립소방병원의 혁신도시 유 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천군 은 음성군과 단일화를 통해 단독 유치를 양보했다. 또 음성 · 진 천ㆍ괴산ㆍ증평의 중부 4군 단 체장들은 공동유치 결의문을 채 택하고 음성군의 국립소방병원 유치에 뜻을 모았다.

결국 음성군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장점을 바탕으로 소방병 원 유치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의 강한 의지로 병원 건립 과정에서 경제성이 뛰어난 점이 반영돼 유 치가 최종 확정됐다.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소방 전 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이달 준공 허가를 앞두고 있다.

소방병원은 302병상, 19개 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531번지 일원에 조성된 국립소방병원.

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연 면적 3만9433m²(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소방청은 국내 최고의 의료시 스템을 도입하고 우수 의료 인력 확보를 통해 개원과 동시에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에 위탁, 개원준비단을 운영하고 있

소방병원은 의료설비가 갖춰 진 뒤인 올해 12월부터 7개 진료 과목(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 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을 시작 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19개 진료 과목을 모두 운영할 예정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국립소방 병원 개원은 음성군과 중부 4군 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 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 국 소방공무원을 위한 의료복지 향상과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청주시,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 확대 운영

43개 읍 · 면 · 동 전 지역 시행

청주시는 이달부터 43개 읍 • 면 · 동 전 지역에서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 2일 밝혔다.

노화 관련 질환으로 거동이 불 편한 노인이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재택진료, 식사 배달, 주 거 환경 개선 등의 서비스를 연계 하는 사업이다.

병원이나 요양원을 방문할 경

우 차량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 다. 시는 지난 4월부터 4개 동에 서 시범 운영하다가 이번에 전역 으로 확대했으며, 75세 이상 중 장기요양재가급여자, 급성기 요 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장 기요양등급판정 대기자 등이 우 선지원 대상이다.

통합지원을 희망하는 노인 및 보호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협업 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 는 등 노인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 하겠다"고 전했다.

## 단양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실현 실무협의회 개최

#### 포용적 학습환경 구축 목표

단양군은 10일 단양군 평생학 습관에서 '2025 단양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실무협의회'를 개 최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군이 지향하는 '참살이 학습도시'를 비전으로 포 용적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을 목 표로 마련되었으며, 행정·복 지 · 교육기관 · 장애인 단체 등 관련 분야 실무자와 전문가 14명 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 사업 추진현황 공유, 충북 평생교 육이용권 지원제도 안내, 현황 진 단 · 발전방안 논의 등 주요 안건 을 다뤘다.

특히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 마 련을 위한 토론과 포럼 운영 방안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병행됐

앞서 군은 지난 2월 교육부 공 모사업에 선정돼 '장애인 평생학 습도시'로 지정됐다. 3년간 사업 비 1억 8000만원(국비 9000만원



단양군은 지난 10일 '2025 단양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실무협의회'를 열고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함)을 확보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웹 접근성 인증 추진과 장애인 주민강사 양 성과정,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 그램 운영. 가치나눔 학습공동체 구성 등 다양한 사업을 할 계획이

실무협의회는 오는 11월까지 분과별 학습모임, 포럼, 프로그 램 운영, 성과공유회 등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운영된다.

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장 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군은 유관기관과 주민의 적극 애인 친화형 평생학습도시 실현

####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용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043-234-0849

E-mail: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www.043w.or.kr

##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사업 제천 · 진천 선정

#### 신한금융그룹 사회공헌협력 리모델링 지원사업

충북도는 여성가족부와 신한 금융그룹이 추진하는 '공동육 아나눔터 공간조성사업' 공모에 제천시와 진천군이 최종 선정되 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34 곳이 참여했으며. 이용자 접근 성 및 공간규모, 주변환경, 돌 봄수요 등을 고려해 총 11곳 을 선정하였고, 신한금융그룹 으로부터 개소당 최대 8800 만원 상당의 공간조성사업(리 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받게

현재, 충북은 도내 11개 시군 에서 총 24개소의 공동육아나 눔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간 나눔은 아동의 놀이 공간, 부모 의 소통 공간, 프로그램 운영공

간을 제공한다. 또한, 자녀돌봄 나눔은 돌봄 품앗이 연계, 가족 상담, 부모 교육, 품앗이 리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정보ㆍ자 원 나눔은 양육 정보를 비롯해

장난감, 도서, 육아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 뤄진다.

오경숙 도 양성평등가족정책 관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확대해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공 동체 조성을 통해 아이 낳고 기 르기 좋은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좁쌀을 이용해 촉감놀이를 하고 있다.

##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시행

포용, 안정적 고령사회 대응 등

이며, '생애주기별 단계별 지원'

은 청년들의 기회를 보장하고

결혼 · 출산 · 양육(교육) 등 중

최근 문을 연 '군 청년센터'에

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또한,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

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요한 생애 과정을 돕는다.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2027년까지 3772억원 규모 146개 사업 추진

진천군은 10일 급격한 인구구 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성장 전략을 마련하 기 위해 저출생 · 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군에 따르면 종합계획은 2027년까지 '함께 키우는 미래, 지속 가능한 인구성장 구현'을 비전으로 146개 사업, 약 3772 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세 웠으며 수도권 집중 완화,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등 구조적 측면 에서의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핵심과제는 생애주기 단계별

지원, 다문화 · 외국인 다양성

개별 사업 간 연계성과 효과 사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공보육도 강화한다. 진천형 저출생 대응 정책인 '덧셈의 삶, 마하2.0+ 프로젝트'

추진으로 새 생명 탄생을 지역 사회와 응원하고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 운영, 다자녀가 정 지원 시책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내외국인 상호 존중 과 소통 강화로 다양성이 존중 받는 사회를 조성해 '다문화 · 외국인 다양성 포용' 과제를 해 결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센터를 리 모델링하고 저소득 외국인 대상 최소한의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 해 외국인 긴급 지원사업과 다 문화가족 의료지원 사업을 시행

'안정적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서는 노인 일자리 지원으로 길 어진 노후의 소득 안정을 추진 해 경로당 관련 지원사업(경로당 신축 · 무료 급식 · 여가문화 강 사지원ㆍ냉난방비지원)도지속 한다. 이에 AI · IoT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으로 고독사 예방과 노후 삶 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 제천시, 초등학생 방과 후 무료 이동 지원

#### 수요응답형 '제버스' 운행…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제천시가 15일부터 제천에듀 케어버스 '제버스(JE-BUS)'은 행을 시작했다.

'제버스'는 제천에듀케어버스 (Jecheon-Educare BUS)의 줄임 말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이다.

도서관, 청소년시설, 체육시 설, 문화공간 등 지역 내 다양한 교육·돌봄시설을 연결해 학생 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동승 도우미가 함께 탑

승해 승ㆍ하차를 안내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며, 이 용 대상은 제천시 관내 초등학 생으로 이용 요금은 무료이다.

제버스는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간대에 맞춰 정해진 정거장 중 호출이나 필요가 있을 때만 정차해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방 식으로 운영된다.

전용 앱을 설치한 후 버스를 호 출하면 된다. 이용 시간 및 정거 로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등 상세 정보는 제천시 누리 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버 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이용률과 만족도, 편의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 집 · 분석해 사업을 개선해 나간 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버스는 학생 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고 지역 내 다양한 교육자원 접근 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 경 학부모는 앱스토어에서 제버스 같은 물론, 지역교육 생태계 전 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

# "맛있는 나는, 사랑의 설전"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b>十</b> 是		기무 식품군	모십가능기한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가공 식품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최소 3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최소 3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식용류	기름류	식용류, 참기름 등		
	음료류		쥬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이 이저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최소 7일 이전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비제리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제류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축 <b>기</b> 교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시레이세오프론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위생용품류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del>북</del>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 충북과 경북 도계마을 경북 '임곡리' 주민 불편 호소

보은군은 지난 1일부터 농어 촌버스 무료승차 전면 시행에 들 어갔지만 충북과 경북 도계마을 인 '보은군 마로면 임곡리'에는 되려 버스 운행이 끊겼다.

특히 생활권이 보은인 경북 임 곡리 주민들은 보은군이 투입한 대체 교통수단인 '사랑택시' 마 저 이용할 수 없어 불편 및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임곡리 마을은 실개천을 사이 로 충북과 경북으로 나뉘어 있 다. 충북은 보은군 마로면 임곡 리이고, 경북은 상주시 화남면 임곡리다. 충북 임곡리에는 13 가구. 경북 임곡리에는 20여 가

임곡리에는 보은군과 상주시 에서 아침, 점심, 저녁때 하루 세 번씩 버스를 운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 1일부터 보은군 농어촌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임곡리는 교통 사각지대로 전락 했다. 상주시 농어촌버스는 그 대로 운행되지만 생활권이 보은 군인 주민들로선 불편이 이만저 만이 아니다.

운전기사들은 임곡리 진입 길 이 좁아 차량 교행이 힘들고 사 고 위험이 커 운행을 꺼려 왔다.

보은군과 신흥운수는 교행 공 간 확보 등을 위해 주민들과 협 의에 나섰으나 토지소유주들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신흥운수는 종점을 임곡리 초입인 서당골로 변경해 회차하고 2㎞ 떨어진 임곡리까 지는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중단

보은군은 대체 교통수단으로 '사랑택시'를 투입, 주민들이 이 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랑 택시는 버스노선이 닿지 않는 오 지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1500 원만 내면 탈수 있다.

한 주민은 "전화로 호출하는 사랑택시는 기다리지 않아도 돼 편리한 점은 있으나 무료로 탈 수 있는 버스 운행 중단으로 부 담하지 않아도 될 택시비를 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경북 임곡리 주민들에겐 이마 저도 그림의 떡이다. 행정구역 이 달라 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승용차가 없는 주민들은 발 이 묶였다.

지

경북 임곡리 장인화 이장은 "생활권이 보은군인데 승용차가 없거나 운전할 수 없는 노약자는 보은읍이나 관기리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불편을 호

이어 "궁극적으로는 도로확장 이 선행돼야겠지만, 보은군과 상주시가 협의해 사랑택시를 모 든 주민이 무료 이용할 수 있도 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양 주민들 간의 위화 감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증평군, 시니어 '행복온 마을카페' 개소

#### 세대소통 · 일자리창출 기대 공감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목

증평군은 15일 증평군 창의파크 2층에 조성된 '행복온(ON) 마을카 페'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 영에 들어갔다.

이 카페는 오늘을 활기차게 살이 가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사회활 동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 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 성됐다. 청소년,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세대 간 이야기 를 나눌 수 있는 '세대공감 커뮤니 티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시니어 바리스 타와 노인일자리 관계기관, 지역 청소년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1부 제막식과 2부 다과 나눔의 시간으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본 행사에 앞서 '리틀챔버오케스 트라'의 식전 클래식 공연이 은은한



증평군은 행복온 마을카페 개소식을 열고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과 함께 테이프 컷팅식

커피향과 어우러지며, 남녀노소 함 께 축하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어 1부 순서에서는 개소를 기 념하는 간판 제막식이 진행됐고, 2 부에서는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직 접 내린 커피를 함께 시음하며 자유 로운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이재영 군수는 "행복온(ON)마을 카페는 세대와 세대가 만나고 마음 이 오가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실감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충주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청년봉사단 '하트풀(Heart full)' 첫걸음

충주시는 21일 곳곳에서 지 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며 활력과 온정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 지 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 어넣을 청년봉사단 '하트풀 (Heart full)'은 19일 성대한 개 소식을 열고 힘찬 첫걸음을 내 디뎠다.

'하트풀'은 충주 청년들이 자 발적으로 모여 만든 봉사단체 로, 그동안 매주 토요일 무료 국 수 나눔 봉사를 꾸준히 이어왔 으며, 한부모 가정과 독거 어르 신들을 위한 반찬 봉사 등 다양

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 다.

이날 개소식에는 많은 지역 주민이 참석하며 '하트풀'의 새 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했으 며, 하트풀은 정식 개소를 통해 더욱더 체계적이고 활발한 봉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성내 · 충인동에서는 우리동 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수제 종 이 클레이 수업이 충인 · 충의 할머니 경로당에서 열리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수업은 종이와 점토를 활용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



충주시 청년봉사단 하트풀(Heart full)이 지난 19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는 시간이 진행됐으며, 평소 문 화예술 프로그램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즐 거움을 선사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 해 시 곳곳에서 하나 되어 봉사 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마음 이 따뜻해진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을 진행한 분들께 감 사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온정 가득한 소식들이 이어지길 바란 다"라고 말했다.

## 괴산군. '일하는 밥퍼' 장애인 친화 작업장 운영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 지역 일손 부족 해소

괴산군은 1일 장애인의 사회참 여 확대와 지역 일손 부족 해소 를 위해 '일하는 밥퍼' 장애인 친 화 작업장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 혔다.

'일하는 밥퍼' 장애인 친화 작 업장은 농가, 소상공인, 기업체 등 지역의 일손이 필요한 현장에 장애인이 봉사활동 형식으로 참 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역 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 생을 실현하는 복지 사업이다.

1차 참여자로 선정된 20명은 종이가방 접기 활동을 시작으로, 농산물 전처리, 공산품 조립, 단 순 포장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주 5일, 하루 3시 간씩 농산물 전처리, 공산품 조 립, 단순 포장 등의 활동에 참여 하며, 활동 시간당 5000원 상당 의 상품권을 봉사활동비로 지급 받는다.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괴산군

장애인복지관(관장 김상현)이 지 정되었고 참여자 모집과 안전교 육, 작업장 운영 및 참여처 연계 등 전반적인 관리 · 운영을 맡는

송인헌 괴산군수는 "이번 사업 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보호나 지 원이 아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장애인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 해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증진 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 양한 일감 제공기관을 지속적으 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옥천군, 다자녀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 5000만원 규모의 주택 개보수 공사 진행

5000만원 규모의 주택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충 청북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개발공사 등 민 · 관 추진 저출생 대응 사업 일환으로 도 내 다자녀 가정 중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가구를 선정해 맞 춤형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 가정은 동이면에 거주하는 다섯 자녀

옥천군은 11일 다자녀가정 생 가정이 노후주택으로 인해 겨울 불편을 겪어왔다.

> 이에 따라 약 5000만원 규모 의 주택 개보수 공사가 진행돼 단열 시공을 비롯해 옥상 방수. 주방 및 화장실 리모델링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 공사 첫날 현장을 찾은 황규 철 군수는 주택을 둘러보고 관 계자들을 격려했으며 해당 가정 에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도 전 했다. 황 군수는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황규철 옥천군수가 다자녀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에 방문했다.

집이야말로 지역이 해줄 수 있 는 가장 든든한 지워"이라고 말

한편, 옥천군은 다자녀 장학

금 지급. 5자녀 이상 가정 지원 금 지급, 4자녀 이상 가정 지원 금 지급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영동군, '노인일자리 창출 인증제' 본격 시행

#### 고령사회 대비… 8~9월 접수

영동군은 지난달 28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인층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일자 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노인을 고 용하거나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 업' 인증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적 ·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이다.

인증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적 으로 가동 중이며 전체 근로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최소 2명, 고 용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 한한

경, 복지 수준 등도 종합적인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 이 행보증보험료 지원과 신용관리 서 비스 제공,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과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실질적 인센티 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마크는 기업의 사회 적 책임 실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어 브랜드 가 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8월부터 9월 말까지 영동군청 주민복지과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 기업은 충청 북도청의 1차 서류심사와 현지실 사, 2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은 인증기업에 대해 충북 중 12월 중 최종 인증기업으로 선정

> 군 관계자는 "노인 고용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제 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 내 고령층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며 "구체적인 접수 방법과 세부 기 준은 8월 중 영동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배색 규격 금액(원) 4단 광고 게재 안내 컬러 300,000 (360mm x 138mm) 1면 제호 옆 돌출 컬러 100,000 (67mm x 33mm) (3개월)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4단 2면 ~ 7면 흑백 200,000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360 \text{mm} \times 138 \text{mm})$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360mm x 138mm) 8면 컬러 250,000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SSN書物業EN割構지함의首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종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5만원~45만원… 오는 9월 12일까지 신청 비수도권 3만원 · 인구감소지역 5만원 '더'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 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 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 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 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 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와 별개로 서울ㆍ경 기 ·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 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 기를 겪고 있는 농ㆍ어촌 인구 감소지역(84개 시 · 군) 주민에 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이 우리 경

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 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을 설계했다.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 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24시간 신청 가능) 및 오프라인(오후 6 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4시까지) 으로 신청하는데 신용 · 체크카 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온 · 오프라인 모두 신청 할 수있는 첫 주에는 혼잡 및 시 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를 적용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이 연장될 수 있다.

요일제는 월요일의 경우 출생

년도 끝자리 1 · 6번, 화요일은 2 · 7번, 수요일 3 · 8번, 목요일 4 · 9번, 금요일 5 · 0번이며 주 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 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 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 청'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할 예정이

아울러 정부는 1차 지급과 별 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 급은 오는 9월 22일 시작해 10 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 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 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 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 정 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 중 발표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 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 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할 예정이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 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 하며,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 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

##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촉구

17년 일해도 최저임금… 돌봄서비스노조 인상 요구

요양보호사들이 1일 '요양보 호사의 날' 17주년을 맞아 정부 에 표준임금제 도입과 정규직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 봄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 사의 표준임금제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기 본급으로 최저임금의 120%를 지급한다고 밝혀왔지만, 현장 에서는 사실상 최저임금만 지 급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을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을 권

고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에 표준임금제 도입, 정규직 전환 및 인력 기 준 강화, 과중한 업무 완화 대 책 마련, 공공요양시설 확대 및 민간 의존형 돌봄정책의 전면 전환,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

이날 현장에 선 노조 조합원 들은 "17년을 일해도 임금은 최 저임금이다", "요양보호사 1명 이 16명 어르신을 감당해야 한 다"며 저임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를 토로했다.

특히 일부 구립요양원에서는 정원 감축과 비정규직 확대가 이어지면서 돌봄의 질 저하 우 려도 제기됐다.

노조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요 양보호사의 현실은 여전히 '최 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상황"이 라며 "국가공인 자격증을 갖추 고 보수교육까지 이수한 요양 보호사들이 인건비 가이드라인 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

이어 "이전 정부는 민간 중심 의 돌봄정책을 고수하며 공공 의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공공 요양시설 확대와 민간 의존형 돌봄정책의 전면 전환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 해 "돌봄노동 존중 없는 국가에 내일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기본 사회',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 대'를 공약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 보육료 지원금 5% 인상

#### 아동 급·간식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원 확대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 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 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 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 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 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 게 집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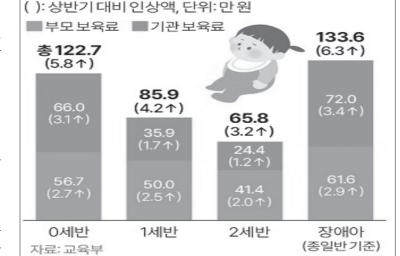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 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 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 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 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

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 육료'가 0세반 54만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 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 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 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 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 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 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 서 66만원, 1세반 34만 2000원 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 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 에서 72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 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 어린이집 보육료 월 지원 단가 2025년 하반기 아동 1인당 지원액



출처: 정책브리핑 · 연합뉴스.

이었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 는 급 · 간식, 냉 · 난방 등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한해 16조 넘었다

신청자 147만 8000명… 1년 새 3.4%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공단)은 지난달 30일 '2024 노 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 간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작년 노 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이 16 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 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 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하는 제도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노인장 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47 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 중 116만 5000명(인정률 89.5%)이 인 정받았다.

인정자 수는 4등급(46.0%)이 가장 많고 3등급(26.7%), 5등급 (11.6%), 2등급 (8.5%), 1등급 (4.8%), 인지지원등급(2.4%) 순

작년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 금을 더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6조 1762억원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최근 몇 년 사이 매해 1 조 넘게 늘고 있으며, 작년 장 기요양 급여비용 16조 1762억 원 중 공단부담금은 전년보다 11.9% 상승한 14조 7675억원 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50만원이 고 이 중 공단부담금은 137만원 이었고 유형별로 보면 재가급여 가 9조 2412억원(62.6%), 시설 급여가 5조 5041억원(37.3%) 을 차지했다.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은 전년 대비 2.4% 늘어난 2만 9058개소로 집계되며 요양보호 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70만 4533명으로. 전년보다 4.5% 늘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헬스장 · 수영장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체육 분야 공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 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7월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 장 · 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 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 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 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 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 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 · 수영장을 소득공제 대 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 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 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 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 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 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 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설 내에서 운동용 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 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를 지난 1월부터 모집해 왔고 이달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 영장 1000여 곳이 등록했다.

앞으로도 공공 매체와 온라 인 매체 등 업계와 국민을 대상 으로 지속해서 홍보해 참여 기 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culture.go.kr/deduction)에 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 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 도 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 제 제도의 참여 신청 방법 등 자 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1688-07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 로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 보호종료확인서, '정부24' 발급 가능

자립준비청년. 직접 행정복지센터 방문할 필요 없어져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가정위 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 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확 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은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보 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

최근 정부는 보호 종료 후 이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 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수 당,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전 국 자립지원전담 기관에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으 로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종료확인서가 필 요하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른 시기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는 본인이 생활하던 아동복지시 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연 락 · 방문해야 했다.

이로 인해 학업, 취업 등의 이 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 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확 인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

이후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 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를 개선했지만 직접 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한다는 불편함이 있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날부터 정부24 홈페이 지를 통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 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

# 한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네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전화) 043-234-0840 복지정보과 박 민 정 코디네이터

# 충북모금회, 저소득가구 에너지 복지 강화

#### 냉·난방단열 원스탑 지원사업 '충북협의회' 선정 2억 5000만원… 복지사각지대 사고예방 등 기여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 장이민성, 이하 충북모금회)는 1 일,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단열 개선을 위한 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충북협의회)에 전 달했다고 밝혔다.

사업 선정 기관인 충북협의회 가 지원금을 교부받아 수행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 월 30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수행기관은 '저소득 가구 냉・ 난방단열 원스탑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노후 냉・난방 기구 및 관련 부대시 설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예 정이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사업 전달 식 및 수행기관 교육이 진행되었 으며, 각 수행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절차 를 공유했다.

이민성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 득 가구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 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응모 회장은 "충북모금회의

충북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과 화합의 장 마련



충북모금회 이민성(오른쪽) 회장이 충북협의회 유응모 회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냉 · 난방 지원을 넘어 취 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길 바란다"며 "복지현장과의 긴 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체계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견과 단절, 정서적 소외라는 수

##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

#### 자립 · 사회통합 지원 최선

남북하나재단 직영 충북하나 센터(센터장 송은하)는 19일 '제2 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를 충주시 파라다이스 웨딩홀에 서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다 름이 하나되어 함께 만드는 미래' 를 주제로 남북한 주민 간 통합문 화 형성을 위해 기획됐다.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조길형 충주시장, 이종갑 · 이정범 · 조성태 충북도 의원을 비롯해 200여 명의 남북 한 주민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우륵가야금 공연, 축사 및 표창장 수여, 화합의 시간(노 래자랑 경품대회) 등의 순서로 진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내외빈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축사를 통해 "북

한이탈주민은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사회적

많은 장벽에 부딪힌다"며 "충북도 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해 지원을 촘촘히 하고, 교육 · 고용 · 문화 등 맞닿는 분 야에 참여와 기회의 폭을 실질적 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은하 센터장은 "80년간 분 단된 조국의 아픔과 고단함을 3 만 4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 이 다 짊어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열심 히 생활하시다 보면 통일이 돼 고 향가시는 날이 꼭 오리라고 믿는 다"고 말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 하나재단은 지난 2010년 북한이 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 됐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정 착부터 생활보호, 취업·교육지 원, 통일 미래리더 양성, 국민인 식개선 캠페인까지 다양한 사업 을 진행한다.



충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에 미래나노텍 임·직원들이 방문해 직접 나눔꾸러미를 포장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미래나노텍, 어려웃 이웃에 '든든한 한끼'를

미래나노텍(대표이사 김철영) 은 지난달 26일 충북사회복지협 의회(회장 유응모)에서 운영하는 충북광역푸드뱅크와 함께 '든든 한 미래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

로시작했다.

'든든한 미래 지원사업'은 미래 나노텍이 전하는 마음, 든든한 한 끼. 꿈꾸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 래. 쌀. 라면. 김. 고추장. 된장 등

기본 식료품 13가지 품목을 담은 5만원 상당의 지원꾸러미를 저소 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 사업이다.

충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에

서 미래나노텍 임 · 직원들이 방 문하여 직접 나눔꾸러미를 포장 하고 충북도내 푸드뱅크 이용자 가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분기마다 진행할 계 획으로, 연간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용자 의 수요와 만족도를 충족시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영 대표이시는 "든든한 한 끼가 주는 힘을 믿는다"며 "진심 어린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유응모회장은 "단순한 물품 후 원을 넘어,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 께하는 지속 가능한 연대의 시작 으로,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 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충북보건과학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앞장'

#### 지역내 6개 기관과 업무협약 실질적 돌봄 인력 기반 마련

충북보건과학대학교(총장 박 용석)는 7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 무협약을 체결하고 돌봄 인력 수 급난 해소와 사회통합형 전문인 력 양성에 본격 나섰다.

충북보건과학대는 국민건강보 험공단 청주동부지사(지사장 박 애순),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원 장 김일한), 충청북도사회복지협 의회(회장 유응모), 충청북도사 회서비스원(원장 이장희), 한국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

부(지부장 박종림) 등 총 6개 기 관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거 버넌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부 · 보건복 지부 · 충청북도가 공동 추진하 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다. 이에 외국인과 다문화 인력 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인력 양성 기반 마련 에 초점이 맞춰졌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사업의 선정 및 운영 협력, 외국인 요양 보호사 실습ㆍ취업 연계 체계 구 축, 노인돌봄 정책 제안 및 돌봄 서비스 협의체 구성 등 폭넓은 분 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한편, 충청대학교(총장 송승 호)도 지난 9일 한국노인장기요 양기관협회 충북지부(회장 박종 림),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회장 조한태), 충청북 도사회복지협의회와 외국인 유 학생의 실습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복 지 인재 양성에 동참하고 있다.

충청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 기요양 및 재가복지 분야 실습 처 제공, 외국인 유학생 대상 언 어 · 문화 적응 교육, 전문 교육 및 워크숍 운영, 국내외 취업 · 인턴십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은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옥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황 명구)은 16일 지역 내 장애인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초 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봉 사회 옥천군협의회(회장 김성근) 에서 닭 250마리를 후원해 이루 어졌으며 적십자 회원 20명이 직 접 대상자들에게 삼계탕을 배식 해 그 의미를 더했다.

황명구 관장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옥천군협의회의 따뜻한 후원 덕분에 지역 장애인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장애 인분들의 복지 증진과 건강을 위 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 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배식봉사에 함께한 황규 철 옥천군수는 "장애인가족 모두 가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행복한 장애인들의 삶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정책 마련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 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보수교육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장화정)는 15일 청주시 가정위탁 부모 75명을 대상으로 충북미래 여성프라자에서 위탁부모 보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가정위탁보호사 업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인 안내와 연령별 위탁아동과의 의사소통 방법, 위탁아동 자립교 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로서 자 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인식하 고 아동 양육능력 및 부모 역량강 화를 위한 시간으로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 록 했다.

장화정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 해 위탁부모로서 아동을 건강하 게 양육하기 위한 올바른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있는 기회가 됐 다"며 "본 센터 또한 위탁부모의 양육 파트너로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 나 방임, 빈곤 등의 사정으로 원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년, 과제와 대안을 말하다

2025년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 좌담회 개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의 현실

지난 2023년 7월,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이 심하고,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간 활동지원제도, 장애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여러 돌봄체계가 존재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도전적 행동을 지 속적으로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안정적으로 수용하 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해나 타해, 돌발행동 등으로 상시 관리가 필요 하지만, 공공 돌봄체계는 물론 민간 돌봄조차 '감당이 안 된 다'며 진입조차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집에서 부모가 24시간 전담하거나, 입원이 아닌 '격리'에 가까운 조치가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기존의 돌봄서비스만으로는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웠던 이들을 위해 전문 인력과 지역 인프라를 연계한 개인별 맞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에 정부는 '개별지원계획(ISP)'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 전담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1:1 지 원, 주거지원, 행동지원, 가족지원 등을 묶은 복합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국립재활원이 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각 지역의 발달장



애인지원센터가 중간 조정자로 나서며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새로운 돌봄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시행 1년,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서비스를 받은 가족들 중에는 "태어나 처음으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도 있지만, 많은 제공기관들은 여전히 불명확한 기준, 준비되지 않은 인력, 예산 부족, 제도 간 충돌을 호소한다.

'도전적 행동'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별 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인력은 부족한데 위험부담은 높고, 처우는 낮아 종사자의 이직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단기 서비스가 끝난 뒤 이어질 중장기 돌봄 대안도 마땅치 않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제공기관 자체가 없거나 인력이 부족해 아예 서비스를 시도조차 못하는 사례도 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 없이는 '그림의 떡'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현장과 얼마나 밀접하게 맞닿느냐에 달려 있다.

전문 인력 양성과 실습 중심 교육, 지역 기반 행동지원 컨

설팅 체계, 가족을 함께 돌보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최 중증도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행 1년. 이 제도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분명한 것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걸음을 제대로 내딛게 할 수 있는 힘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움직이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이에 충북 지역의 복지 전문가들과 실천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1년의 현황 과 과제를 진단했다.



이순희 좌장



김현숙 연구위원



안종태 연구위원



유응모 연구위원



김정인 초청위원



최수진 초청위원

이번 좌담회는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순희) 주관으로 지난 6월 26일 오후 2시 30분, 청주시 운천동에 위치한 '구루물이지트 3층'에서 개최됐다.

참여 연구위원은 청주가경노인복지관 김현숙 관장, 충 청북도곰두리체육관 안종태 관장, 충청북도사회복지협 의회 유응모 회장이 참여하였고, 초청패널로 충북발달장 애인지원센터 김정인 센터장, 이음 최중증발달장애인 통 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최수진 센터장이 함께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좌담회는 제도의 초기 성과와 한계를 되짚 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에 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과 제도 간의 괴 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의 시급함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 현장의 목소리로 살펴본 제도 개선 방향

#### '제도는 시작됐지만, 준비는 미흡'

이날 좌담회의 포문을 연 이순희 청주시사회복지 연구소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최중증'이 라는 표현이 여전히 사용된다는 건, 그만큼 돌봄의 강도와 어려움이 높다는 의미"라며 "제도의 당위성 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부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타났기에, 오늘 좌담회가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 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문성 갖춘 인력유입 절실'

안종태 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고, 특히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의 7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라며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은 이를 반영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지원, 개인예산제, 활동지원 고도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장애 당사자의 자립기반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현장에서 는 여전히 제도와 실제 적용 간 괴리와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전적 행동 중심의 서비스 기준, 현실적 어려움 커' 최수진 초청위원은 "서비스가 급하게 출발하면서 인력 확보나 기준 정립이 미흡했고, 도전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 기준 때문에 정작 실제로 필요한 이용 자가 배제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간 운영 격차, 예산 구조의 복잡성, 종 사자 이직률, 전문성 부족 등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 이 심화되거나 방임될 위험이 있다"며 종사자의 전 문성 확보와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교육의 구조적 개선 강조, 지방비 기반 특화사업 구축' 김정인 초청위원도 "80시간의 온라인 · 집합 교육 이 구성은 잘 되어 있지만, 대면 실습이 부족해 현장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례 기반 교육, 기관 내 슈퍼비전, 실천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전적 행동 대응 전략이 종사자 소진 및 이 직률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행동지원 컨설팅 사 업이 모든 지역에서 지역센터 고유 사업으로 추진되 기 위해 충북도는 타 지자체처럼 지방비 기반 특화 사업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제 행동이 아니라 '이의제기 행동' 인식 전환 절실' 김현숙 연구위원은 "도전적 행동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것은 당사자의 의사표현일 수 있고,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도적인 삶과 자립 가능성을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예비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과 훈련 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가정 돌봄의 한계와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시급' 유응모 연구위원은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을 가정 에서 돌보는 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례가 많 다"며, "실제로 상담을 요청해 온 가족 사례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도심에 편중돼 있고 농촌 지역에는 전무한 수준"이라며, "소득에 따른 자부담 차이 외에도 서비스 선택권이 거의 없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이제는 실천할 때

좌담회 후반부에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제안들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실 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 김현숙 연구위원

입사 초기 일정기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대체인력 지원사업과의 연계 강화, 종사자 전문성 인정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이용자 중심의 관점 전환과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수진 초청위원

'최중증' 대상자 선정 기준의 명확화, 행동지원 컨설팅 확대, 전이 이후 서비스 연계 마련, 종사자 사전교육의 제도화 등을 과제로 꼽으며 "돌봄의 회귀가아니라, 실질적인 전이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 ■ 김정인 초청위원

실습 중심의 현장 맞춤형 교육체계 도입, 내부 슈퍼비전의 정례화,행동지원 컨설팅 예산화 및 상근 전문가 배치, 대학 교과목 개편 등 현장 중심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실현과 지역 간 급여 격차 해소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유응모 연구위원

통합돌봄을 독립된 전문분야로 인정하는 정책 체계 마련, 자립 개념의 사회적 재정립, 도시와 농촌 간접근성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사자 중심의 실천적 접근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 안종태 연구위원

"도전적 행동 대응도 통제 중심에서 환경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입사 초기 집중 교육, 상시 슈퍼비전 인력 배치, 질 중심의 교육 체계구축 외에도 돌봄 종사자의 장기 근속을 위한 호봉및 전문수당 현실화, 경력 인정 체계 정비, 처우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 이순희 소장

"오늘 좌담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의 제안이 모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전적행동'이 통제의 대상이 아닌 당사자의 '이의제기 행동'일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 그리고 돌봄이 곧 삶이라는 인식 속에서 종사자 교육, 지역 격차 해소, 전문성 인정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만큼, 이제는 이를 실천으로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 1:1 지원 인력을 배치해 맞춤형 주 · 야간 돌봄 지원

■ 도전적 행동에도 신속한 지원 · 개입 제공

■ 강화된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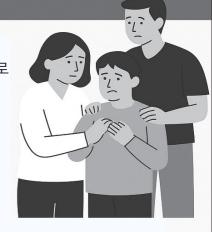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왜 필요했나?

■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로는 한계

부모의 24시간 돌봄, 격리 수준의 보호가 현실

맞춤형 돌봄을 위한 1:1 지원 체계 도입



"이제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 等別學學



최 명 희 충주성폭력상담소장

나는 군인인 남편을 만나 군인가족으 로 30년 가까이 살아오다 보니 세상 돌 아가는 일에도 점점 둔해지고, '민간인' 이라는 단어조차 어색하게 느껴질 즈음, 우연한 계기로 생명의전화를 알게 되었 다.

당시, 아는 지인이 곧 시민 상담교실 이 열린다며 교육을 받아보라고 권유해 주었는데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교육을 수료하면 상담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

'과연 내가 훌륭한 상담원이 될 수 있 을까?'하는 생각에 주저했지만, 어느날 불현듯 용기가 생겼다. 아니. 어쩌면 생

## 상담실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

각이 바뀐 것이다.

'나를 위해 상담 공부를 해보자'는 마 음으로 50시간의 교육을 수료했고, 그 렇게 나는 상담원이 되었다.

상담 봉사를 시작한 첫날, 나는 얼마 나 떨렸던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콩닥 콩닥 뛴다.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며, '과 연 어떤 전화가 걸려올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벨소리가 울렸다. 나의 첫 내담자는 29살의 총각, 배우자 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40일 작정 새벽기도를 하며 배우자를 찾고 있었지만, 스스로 그리는 이상향이 너무 높아 쉽사리 짝을 찾지 못하고 힘 들어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 간,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

상담 교육 시간에 "답을 주는 것이 아 니라,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사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으 신데, 이상향의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아 많이 초조하고 불안하셨겠어요"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며 이어 말했다.

"믿음으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 자체가 정말 귀하고 대단하신 일이 에요"

내 말을 듣던 내담자는 이내 조용히 물었다.

"제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루 어 주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 라는 믿음을 전하며,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건넸다.

"직장도 찾아야 하고, 외모를 가꾸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혼생활은 외모가 전부는 아니고 진심과 책임감, 믿음이 더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직 그의 마음에 깊 이 닿지는 않은 듯했다.

상담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다"는 말을 전했고, 그 이후에도 그는 종종 전 화를 걸어왔다.

이젠 내 목소리를 먼저 알아보고 반갑 게 인사를 한다. 처음 상담했을 때보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느껴졌고, 직장도 생 겼다고 했다.

"자기 일에 충실한 모습이 참 멋져 보 여요" 나는 지금의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내담자가 처음과는 달리 조금씩 바뀌 어 가는 것을 보니 나 역시 뿌듯한 마음 이 들었다. 그렇게 상담 일을 이어오던 나는, 어느새 '생명의전화' 간사로 일하 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더 전문적인 상 담원이 되기 위해 50살이라는 나이에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다. '이 나이 에 자격증을 따서 과연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공부에 매달려 마침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 순간, 마치 무슨 벼슬이라도 단 것 처럼 기뻤다.

그 후, 생명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성폭력상담 소 소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제는 60살을 넘긴 나이에 소장으로 서의 책임을 다하며, 성폭력 범죄를 예 방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 의료적 · 법률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권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나아가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 로. 다양한 사회적 연대 활동과 홍보 · 교육 · 연구 등을 통해 성폭력 없는 세상 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인간 중심의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보다 성평등하고 건강하며, 따뜻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는다.

## 等別是超

## 작은 생명에서 배운 보살핌



조 봉 희 행복드림 심리상담연구소 대표

아이가 식탁에서 검은색의 아주 작은 무언가를 발견한다. 무엇일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궁금함을 채우려 자세히 보고 또 보며 관찰한 다. 얼마 후, "아! 달팽이다!"라고 소

리치며 기뻐하다. 기쁨도 잠시, "달팽이가 말라죽은 것 같아"라며 안타까워하며 작은 그 릇에 물을 가져다 넣어주고 한동안 가만히 살핀다.

그러자 물을 넣어주고 기다린 보 살핌에 응답하듯, 달팽이가 아주 조 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반응에 "살아있어~ 살아있어 ~" 하는 소리에 반응하듯 온 가족이 몰려와 들여다본다.

달팽이의 움직임에 안도하며, 보 살핌에 더욱 집중하여 상추, 오이 등 집에 있는 야채를 잘라 넣어주고, 물 도 보충하며 지극정성을 다한다.

그 정성에 보답이라도 하듯, 이제 는 더듬이도 나왔다.

아주 작아 잘 보이지도 않지만, 보 고 또 보고 살피면서 작은 달팽이의 모습이 온전히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달팽이에게 적합한 조건을 검색해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 간절한 마 음으로 살핀다.

"이제는 달팽이가 상추도 조금 먹 었어요",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 발 견됐어요" 등 달팽이가 얼른 회복해 방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 음으로 말이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현 사회는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된다. 아이가 달팽이를 살피듯, 우리도 서로를 관 심과 사랑으로 살피며 살아가야 하 지 않을까?

요즘 접하는 사회 뉴스는 사고의 연속과 상상할 수 없는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죽음에 이르고, 학교폭 력.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의 칼부림 등 안타깝고 마음 아픈 소식이 가득 하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 지만, 요즘 사회의 일면을 접할 때면 걱정과 염려로 불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회 속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가야 할 길을 잃고 어지럽게 허둥대는 모습이 연상되곤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봄'이 아닐까 생각한다. 먼저 자기 돌봄으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이 사는 사회에서 지 적과 공격을 받는다면 아마 많이 힘 들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에도 '사회'가 있다고 본다.

그 자기 내면 사회에서 자신에 대 한 평가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

즉,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 평가 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해 허용과 수용은 있는지, 또 지지와 격 려가 가능한지, 아니면 지적과 탓으 로 몰아세우고, 화가 나 있지는 않은 지 돌아보며 자신에 대한 돌봄과 세 움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그 후에야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살펴 수용할 수 있고, 지지와 격려가 가능해지며, 보살핌으로 서로를 살 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요즘 사회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외면하고, 지적하며 소홀히 대하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그 마음 으로 상대를 대하는 마음 또한 같은 마음으로 만날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한 상황이 순화되어 상대를 대하는 모습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때 우리는 아프고 외롭고 화가 난다.

그 화가 자신에게 향한다면 우울 이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고, 상대 에게 향한다면 상대를 힘들게 하며, 원치 않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모습이 악순환되며 패턴화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수록 염려 되고 걱정스럽다.

그 누구를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 아보고 자신의 내면소통은 어떠한 지, 자기수용과 마음챙김은 충분한 지,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면 안 정된 마음과 편안함으로 만나는 상 대 또한 편안히 수용하며 받아들이 는 모습으로 소통할 것으로 보여진 다.

그렇게 자신부터 선순환하는 생활 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 더 나 아가 지역사회도 안정되고 편안해 질 것이다.

지금이 바로, 나부터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현 사회는 너와 나, 우리를 보 듬고 편안히 방향을 안내하는 '서로 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듯하다.

"나는 나면서 너가 되고, 너는 너면 서 내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되고 함 께 살아가는 삶이 되고 사랑이 된다" 는 글귀가 생각난다.

즉,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너와 내 가 서로를 보듬고 살피며 살아간다 면 배려와 안정. 편안함 속에서 안녕 감과 행복한 가정, 직장 더 나아가 지 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마음 모 아 소망해 본다.

## 현장의 목소리



김 춘 애 충주시립노인주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나는 북한사람이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10년을 지냈고, 지금은 한국 정착 17년 차에 접어든 탈북민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평범 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는 사회복 지사로 일하고 있다.

중국 연변에서 지내던 시절, 탈북민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던 시기였기 에. 꿈에서도 체포되는 악몽을 꾸다 벌떡 일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곤 했었다. 한국에 정착해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

착지원사무소) 교육을 마치고 배정된 집 에 처음 들어섰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낯선 환경에 마음이 긴장돼 있던 찰나. 정착도우미분이 찾아와 따뜻한 말로 안 부를 묻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는데. 오히

## 사회복지사가 되기까지

려 그 친절함에 고향과 부모님 생각이 밀 려와 첫날 밤을 펑펑 울며 지샜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정착생활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전자회사 생산직, 화장품 가게 매니저 등 다양한 일을 하며 한국 사회를 배워가는 시간이었다.

그러던 중 문득 컴퓨터를 배워보고 싶 다는 욕심이 생겼고, 하나하나 자격증을 따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도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언제든 전화하면 따뜻하게 반겨주던 상담사 선생님이 어느 날 야간대학교 진 학을 추천해 주셨고, 그 계기로 어렵게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수업을 병행하며 힘들게 학교를 다녔다. 졸업 후 바로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지만, 전문직 에 대한 열망을 품고 꾸준히 구직 활동을 이어간 끝에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었다.

처음 발을 디딘 곳은 요양원이었다. 탈 북민이라는 정체성과 문화 차이, 주변 시 선 때문에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웠다.

긴장과 피로가 쌓여 그만두고 싶던 순 간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 을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과 인성이 업무 능력보다 더 중요함을 깨달았다. 그때 비 로소'진짜사회복지사'로 한 걸음 나아갔 음을 느꼈다.

우리가 한 민족이라 하지만, 75년이라 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과 북의 문화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고, 마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 다.

처음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는 특유의 억양과 문화 차이 때문에 동 료 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의 시선이 낮 설고 때로는 차별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

그렇다고 그분들을 탓할 수 없어 나는 그들의 억양을 배우려고 TV를 보며 열 심히 따라 했고, 문화 차이로 생긴 문제 들에 부딪힐 때마다 겸손한 자세로 배워 나갔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티가 나도 자신 있는 어조와 책임감, 배우려는 마음으로 일하니, 서서히 동료들도 나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함께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이해하 고 공감하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보 호자와 원활히 소통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 늘 고민이 많았다.

특히 탈북민인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 을지 의심 어린 시선이 더욱 신경 쓰였 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며 다음 일정을 준 비하곤 했다.

북한의 노인 복지는 일부 특권층만 누 리며, 대부분 노인은 가족부양에 크게 의 존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집을 떠나 는 '노제비(노인꽃제비, 어린꽃제비)'도 늘고 있어, 일반 평민의 노인 복지는 사 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반면 한국은 소득 보장,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펼치며,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춰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 지사로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며 생활하고 있다.

노인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섬김, 그리고 진심 어린 봉사 정신을 가져야만 비로소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

물론 업무가 밀려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일 때도 많지만, 북한에 계신 부모님 을 모시지 못한 죄책감이 마음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기에, 어르신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함께 밝게 웃어주시는 진심 어린 표정을 볼 때마다 남다른 뿌듯 함과 행복감을 느낀다.

북한에도 한국처럼 노인복지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을 까 하는 생각에 늘 마음이 아파오기도 한

탈북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 나가 사회복지사라고 한다. 더 많은 탈북 민들이 '탈북민'이라는 이름 대신 전문지 식을 갖춘 유능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하 기 위해 꾸준히 역량을 키우며 준비해 나 가길 바라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미래를 꿈꾸다 보면, 언젠가 는 그 꿈꾸던 미래의 자신을 만날 수 있 으리라 믿는다.

##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홈닥터



합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 이 달의 법률상식



시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베트남 국적자 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현재는 관광비자로 체류 중이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 요?

A.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 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

##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 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 경신청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체류 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 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 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 · 외 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 (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 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 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 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은 대한민 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 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먼저 결혼이민(F-

6) 비자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한국 거주 후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동정

- 진천군자원봉사센터
- ▷ 센터장이미숙 / 7월 1일자

#### 인사동정 이용 안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사회복지사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변화의 기초를 다지는

■ 신청대상: 전국단위 사업수행이 가능한 비

■ 신청기간: ~2025. 8. 29.(금) 18:00 (약 2개월)

■ 신청방법: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proposal

■ 지원금액: 기관별 1년간 최소 1억원 이상,

[우리금융미래재단, 위비프렌즈와 함께하는 위비랑

■ 사업대상: 전국 아동양육시설 내 만 1세 생

■ 지원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지

원금 100만원), 찾아가는 돌잔치 지원, 간식비

■ 참고: www.woorifuturefoundation.or.kr

■ 지원대상: 전국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 지원내용: 청소년 결연 지원, 생계·의료·

교육 · 주거 · 심리정서 지원, 긴급한 위기상황

■ 신청기관: 아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

\*지원금 전용 기관계좌 개설 및 집행 가능 기관

■ 지원기간: 연중상시(당해년도예산소진시마감)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withgo.or.kr) 내 '위기가정 희망지원사업' 페이지 접속 및 신청

일을 맞이하는 아동(2024년 1~12월생)

■ 사업기간: 2025년 4~12월 (총 9개월)

■ 신청기간: 사업 기간 내 상시 모집

■ 신청방법: 구글폼으로 신청서 제출

[함께하는 사랑밭, 위기가정 희망지원사업]

극복 지원, 온라인 모금캠페인 지원

\*사례관리실무기관

서 작성/이메일 제출

다] 참여기관 모집 안내]

프로그램(성과형) 사업

영리 기관 · 단체 · 시설

.chest.or.kr)를 통한 신청

최대 2억원 이하

■ 지원인원: 총 50명

지급, 선물키트 제공

돌잔치

■ 사업기간: 2026. 1. 1.~12. 31.

#### 지역사회봉사단

#### 해오름봉사단, 이 · 미용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소속 '해오름봉사단(단장 구본옥, 이하 봉사단)'은 11일 성 이네나눔쉼터를 방문해 이 · 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미용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요양 원, 시설, 쉼터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자 및 이용자 어르 신들을 대상으로 이 · 미용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해오름봉사단'은 2010년 충북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 으로 위촉되었으며, 현재 미용실 을 운영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미용실을 직접 찾아오는 취 약계층 대상으로도 재능나눔 활 동을 펼치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 에 임하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 입되어 있는 2인 이상 자원봉사자 로기술및재능을가지고있는단 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활동 혜택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 야의 맞춤형 봉사활동 연계, 봉사 활동 활동재료 지원, VMS 봉사실 적 관리, 우수봉사단 표창 등을 지 원하고 있다.

## 복/지/만/평

#### 폭탄 돌리기

이창신 www.bokmani.com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 인재(人災)입니다.

#### 복지정보 제공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 · 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유관
- 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 043w.or.kr) 팝업창 참고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5년도 유니버설디자인체 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12월 31일 (상시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주시 흥덕구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생,대학생,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 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디체험관 및 주택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 043)234-0840~2)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참고: www.043w.or.kr

####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안내]

- 사업내용: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 용이 힘든 발달장애인에게 욕구 및 지원필요도 에 따라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및 원 하는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서비스
- 주요서비스 및 제공시간
- 24시간 개별 1:1 지원(주중 낮활동과 야간돌 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 주간 개별 1:1 지원(이용자 특성에 맞는 1:1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 주간 그룹 1:1 지원(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 처)를 사용하는 1:1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 서비스내용: 도전행동지원,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 취미활동 등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043-716-2168~9)

#### [KBS강태원복지재단, 2025년 하반기 장바구니 집 시들 '지립준비청년 식재료 꾸러미 지원 시업' 참여 자모집

- 지원기간: 9월~12월(총 4개월/6회 지원)
- 지원대상: 전국 만 3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 지원내용: 1인당 총 60만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 지원
- 자격요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대상으로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신청기간: ~2025. 8. 7.(목) 16시까지

#### ■ 신청방법: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참고: www.kbsktw.com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설거주 장애 청소년 · 청년 의 자립을 위한 통합지원사업]

- 주요대상: 시설에 거주 중이거나 퇴소 예정
- 인 장애 청소년 · 청년(~39세 이하) ■ 신청자격: 시설거주 장애 청소년 · 청년을 위
- 한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 · 기관 · 단체 및 시설 ■ 사업내용: 자립생활 기술 훈련, 전환기 교
- 육, 주거 및 자립지원 등 ■ 신청기간: ~2025. 8. 22.(금) 18시까지
- 사업기간: 2025. 11. ~ 2028. 10 (3년)
- 사업예산: 연간 20억원 (기관당 연간 최대 2 억원) \* 지원가능 항목: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 비. 관리운영비
- 신청방법: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propos al.chest.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바보의나눔, 2025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 험에 처해있는 실질적 여성가장(신청기관에서 1개월 이상 사례관리, 가정 방문중이거나 향후 신청기관의 사례관리 과정에 동의한 개인)
- 지원예산: 1인당 최대 400만원
- 지원분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긴급지 원이 필요한 내용
- 신청기간: 신청월 5일 18시 이후 ~ 익월 5일 18시(12월 5일까지 매월 접수)
- 사업기간: 신청월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 회복지기관(대상자 개인신청 불가) 체(사회복지기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제출 서류 구비 및 온라인 접수
- 참고: babo.or.kr

#### [푸르메재단, 2025 하나금융그룹 재활 보조기구 지 원시업 신청 안내]

- 지원내용: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1인 최대 250만원)
- 지원기간: 2025. 10. ~ 2026. 3. (최대 6개
-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복지관.
- 참고: gwon.net

경, 인권 등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의 삶의 질향 상을 위해 계획된 서비스 및 활동, 성과목표 달 성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를 꾀

- 지원대상: 만24세 이하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
- 월. 선정 후 보조기구 납품 기간)
- 신청기간: ~2025 8. 29.(금) 24시까지
- 병원. 주민센터 등) 담당자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6년 전국단위 신청사업

■ 사업내용: 복지, 보건 · 의료, 교육, (기후)환

#### ■ 문의: 지역별 문의처 상이 [김대일문화재단, 2025 나들이 지원사업 [놀이; 하

- 신청요건:아동양육/보호시설에 해당하는시설 - 보육원, 그룹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청소 년 쉼터 등 지원대상자 거주 및 생활시설
- 사업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필수
- 지원대상: 해당 시설 이용자 및 관계자
- 신청기관에서 생활 중인 취약계층 아동/청 소년 및 보호자
- 신청기관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 및 인솔자
- 신청기간: 2025년 3월~10월 중상시 모집
- 지원내용: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비용 250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참고: www.kdcf.or.kr

## 好车上车产品是 星期 粉石 一到 0大豆豆至上午什么 모금기간: 2025.07.21.~2025.08.17.까지 2025년 7월 16일부터 발생한 폭우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 이웃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세요. ~~~~ 🎉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급회 모금기간 2025년 07월 21일(월) ~ 2025년 08월 17일(일)까지 지원계획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 현물(의연금품)은 지역구호센터(지자체)를 통해 지원 문 의 043-238-9100 예금주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청북도지회 313-01-144258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희망시 문의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도와드립니다. 사랑의열매

#### 자원 봉사자 모집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8.1 ~ 8.31 전화번호: 043-234-0840

#### ▶ 행정업무 지원

관리센터: 음성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883-2470

#### ▶ 사무보조 및 환경정리

관리센터: 단양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활동기간: 8.1 ~ 8.31 전화번호: 043-422-7788

####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관리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8.1 ~ 8.31 전화번호: 043-288-1428

#### ▶ 어르신 말벗, 이동도움 등

관리센터: 플래티늄 청주점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903-2000

#### ▶ 밑반찬 서비스 전달

관리센터: 영동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8.1 ~ 8.31 전화번호: 043-743-0095

#### ▶ 동년배 상담사 업무

관리센터: 청주상당노인복지관 활동기간: 8.1 ~ 8.31 전화번호: 043-288-3060

####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